



2019하계의료봉사

지난 7월 14일(일),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한 '2019 하계의료봉사'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건강검사와 처방,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는 재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동문회원과 교직원 봉사자가 참여 하였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및 동구청장 등 많은 내빈이 방문하여 자리를 빛냈다. 우리 학교는 매년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나라 기자



대전보건대학교 신문사 대전 대학생네트워크 대견한 토론회 참가

대전보건대학교 방송국 청춘 너나들이 청년정책 라디오 프로그램 참여



지난 6월 1일(토), 대전대학생네트워크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대학생 당사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창구 마련을 위해 개최한 '제1회 대견한 토론회'에 우리 학교 신문사가 참가하였다. 토론회는 '지역-대학-학생 소통의 어려움과 소통 창구 부재'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패널로는 지역 국회의원, 교육부 관계자, 교수, 학생대표, 시민단체로 구성되었고, 객석에는 지역 언론사와 대학생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발제, 발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학교 신문사는 이 토론회에서 다른 대학의 신문사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박수연 기자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 학교 방송국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대전광역시 청년센터 운영사업 중 하나인 청년정책 홍보 라디오 방송 운영<너나들이 토크>을 진행한다. 세부내용은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녹음방송을 주 1회 우리 대학 정규 일일방송에서 송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국장이 월 1회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시나리오 회의 및 송출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로 재학생들에게 청년정책 홍보 및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김지은 기자

INDEX

- 01 2019년 총동문회 하계의료봉사
- 02 한국코칭학회 MOU체결
- 03 자랑스러운 동문-치기공과 이규선 동문 동남보건대 총장 취임
- 05 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해줄 성향별 취미생활 추천!
- 06 당신의 반려견, 모두에게 안전한가요?

- 07 사랑으로 포장된 범죄
- 08 간접흡연, 그만 하고 싶어요.
- 09 산 자들의 외로운 싸움-한평생을 바쳤으나, 병을 얻었다.
- 10 청춘은 왜 아파야 성장할까요?

한국코칭학회 MOU 체결



지난 6월 5일(수), 9동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코칭학회(배재훈 회장)를 초청하여 대학생 인성 교육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은 보건의료계열 전문대학으로서는 최초이다. 향후 한국코칭학회의 KCA 전문 2급코치 자격과정을 대학 내에 개설하여 재학생 코칭교육을 통한 인성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MOU체결을 통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최고의 보건의료인력이 배출될 전망이다.

/김지은 기자

대전YWCA 업무 협약식



지난 5월 27일(월), 대전YWCA 회의실에서 대전YWCA와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강오 총장은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민보건 증진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재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정나라 기자

공영장례 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식



지난 6월 5일(수), 서구청에서 서구청,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대청병원 장례식장, 성심장례식장과 ‘공영 장례 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영장례 사업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및 무연고사가 증가함에 따라 고인에 대한 존엄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서 구청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경비를, 장례식장은 빈소설치 및 공영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장례지도와 학생을 파견해 장례절차와 추모의식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장례지도와 학생들은 취업 전 현장경험을 쌓고 소외된 지역사회 구성원의 존엄한 삶 마무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복지 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김기중 기자

2019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난 5월 13일(월), 9동 4층 건강관리실(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교직원 26명과 학생 9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실시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구분되고 차별되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인식 개선 및 사회 통합 도모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으로 변화하길 바라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김유민 기자

건강관리실과 함께하는 2학기



건강관리실에는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재학생들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건강할 수 있는 내용의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으니,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바란다.

/오다영 기자

	2019년 2학기 건강관리실 프로그램 소개	기간
건강	건강계단 걷기 캠페인	2학기내내
	장애인식 개선사업	9월
	금연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금연사업 금연버스	8월 29일
	다문화가족 인식개선교육 캠페인	11월 중
	암예방교육	10월 둘째주
	에이즈예방교육	12월
상담	진로집단상담	9월~2학기 내내
	대인관계능력 향상 집단상담	9월 10일~10월 1일 매주 화요일

호텔외식조리와 한식동아리 행사



지난 6월 4일(화), 호텔외식조리와 한식전공동아리 ‘숙수쟁이’가 9동 9층 연회장에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4년 연속으로 실시된 한식 전공자 취업지원사업으로 교내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감사 자리로 시작되었다. 호텔외식조리와 학생들은 환경미화원들을 초청해 직접 요리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오 총장 외 각 행정부서장과 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행사의 뜻깊은 의미를 나누었다.

/박수연 기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지난 5월 24일(금), 8동 4층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창업아이디어 평가는 김원수, 백승선, 장광희 교수가 심사를 맡아 진행되었다. 그 결과 대상-주얼리디자인과 'HIT애견인', 금상-식품영양(학)과 '부대찌개', 은상-화장품과학과 '팔색조', 의무행정정보(학)과 '홍조', 동상-유아교육(학)과 '개인', 화장품과학과 '뇌구조', 연합 '나리주식회사', 연합 '시크릿주', 장려상-작업치료(학)과 'NSY'와 11팀으로 총 20팀이 수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재학생들이 병원이나 기업체로의 단순 취업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등 다양한 진로설정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김유민 기자

창직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지난 5월 24일(금), 취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직과정 활동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창직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로 진행되었으며, 총 6팀 30명이 참여하였다. 창직이란 창조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발굴 또는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창직에 대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김유민 기자

HRD사업단 공동훈련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방문



지난 7월 24일(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전·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우리학교 HRD 사업단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의 훈련과정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후 9동 2층 대회의실에서 HRD사업단의 2019년도 훈련과정 운영 현황 및 지난 성과 발표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리학교 HRD사업단은 함께 참여하는 5개 대학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며 전년도 A등급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강오 총장은 우리학교 HRD사업단의 훈련과정이 보건 의료 ICT분야 인력양성 체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융·복합 분야의 다양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훈련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김기중 기자

자랑스러운 동문을 소개합니다!



동남보건대학교 이규선 교수님 인터뷰

Q1.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치기공과를 졸업한 후, 교정전문 거산치과기공소를 운영하다가 2001년 동남보건대학교 치기공과에 전임교수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치과기공사시험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치과공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동남보건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2. 교수님께 대전보건대학교는 어떤 의미인가요?

입학 당시 대전보건대학의 치기공과는 현재 환경보다 열악했지만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대학과 교수님들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오늘날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주셨으며, 제 인생의 전환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Q3. 교수님의 전공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중학교 시절 친구를 만나 치과기공을 처음 알게 되었고, 미래의 유망직업이라는 확신이 들어 대전보건대학교 치기공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치과교정기공 분야의 미래 전망에 대한 조언을 듣고, 세부 전공으로 선택 해 산업체에서 좀 더 체계화된 현장중심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현재도 대학에서 치과교정기공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Q4. 마지막으로 대전보건대학교의 동문,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고는 아니었지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때로는 좌절도 있었지만, 치과교정기공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후배님들도 좌절이 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하다보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수연 기자

방사선(학)과, 제2회 캡스톤디자인 대학생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지난 7월 4일(목), 방사선(학)과 학생들이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에서 한국융합학회가 주관한 'ICT2019 국제학술대회 및 제 2회 캡스톤디자인 대학생 경진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X-rayart로 표현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들은 백원규, 서동민, 강훈규, 공남윤, 이예린, 정은비, 지현빈, 이혜인, 양연실, 엄소연 등 10명(지도교수 방사선(학)과 전민철)이다.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재학생들의 연구, 발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아픔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중 기자

동화 속으로 Dis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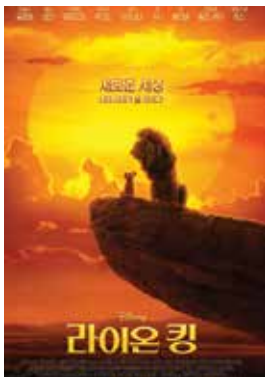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 감동과 동심을 선물해주는 디즈니. 최근에는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실사화로 재탄생시키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실사화된 비주얼로 만나본 영화는 어릴 적 해당 동화를 본 관객들에게 다양한 재미와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계속해서 만나보고 싶게 만드는 만족감을 선사한다. 실사화를 통한 생동감과 배우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영화에서 감동과 동심을 주는 영화까지, 지금부터 디즈니의 매력에 푹당 빠져보자!



<알라딘> 2019년 5월 개봉
‘알라딘’은 좀도둑에 지나지 않았던 알라딘이 우연히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를 만나게 되면서 환상적인 모험을 겪게 되는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이다. 무엇보다도 1992년, 전세계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2D 애니메이션 영화를 실사화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걱정을 한 몸에 받아왔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다채로운 색감이 돋보이는 화려한 영상미로 시선을 끌었다. 극 중 자스민 공주의 ‘Speechless’는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웅장한 노래로 시작되는 이야기, 이국적인 도시와 화려한 궁전에 어느 순간 당신은 스크린 속에 매료되어 있을 것이다.



<토이스토리4> 2019년 6월 개봉
‘토이스토리4’는 장난감의 운명을 거부하고 떠난 새 친구 ‘포키’를 찾기 위해 길 위에 나선 ‘우디’가 우연히 오랜 친구 ‘보팝’을 만나고 그녀를 통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또 다른 이별과 새로운 시작을 담백하면서도 위트 넘치는 시선으로 담담하게 관조하고 있다. 이별이 항상 마지막을 의미하지만은 않으며 그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삶이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따뜻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토이스토리’는 장난감, 인형이라는 사랑스럽고 아주 친숙한 소재를 사용하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이야기이다. 주말에 가족들끼리 한자리에 모여 같이 시청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이온킹> 2019년 7월 개봉
‘라이온킹’은 왕국의 후계자인 어린 사자 심바가 삼촌 스카의 음모로 아버지를 잃고 왕국에서 쫓겨난 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친구들과 함께 진정한 자아와 왕좌를 되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라이온킹’은 1994년의 원작을 실사화한 작품으로 동물들의 모습을 어색함 없이 현실적으로 잘 묘사했고, 아프리카 초원을 내달리는 장면과 전투신을 통해 동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또한 라이온킹하면 빠질수 없는 OST가 2019년 버전으로 재탄생해 한층 더 웅장한 사운드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물란> 2020년 3월 개봉 예정
영화 ‘물란’은 중국의 구국소녀인 목란에 대한 설화를 각색한 작품으로, 아버지를 위해 남장을 하고 군대에 입영하는 물란이 위험으로부터 황제를 구해내는 이야기이다. 이 영화도 1998년의 원작을 실사판으로 재탄생시켜 개봉하는데 원작 애니메이션의 한 축을 이끌어가던 주인공 리 샹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각색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작에 없던 오리지널 캐릭터인 마녀, 첸 홍휘 등의 역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매력을 더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큰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주인공 물란으로 캐스팅된 유역비는 탄탄한 체격과 다양한 무술 경력, 세계적인 인지도 등을 지녀 최고의 캐스팅으로 찬사 받았기에 더욱 기대되는 영화이다.

방학 끝, 새학기 시작! 개강준비 이렇게 해요!



새로운 학기, 새로운 수업, 새로운 필기구! 새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필기구를 마련하고 싶은 학우들을 위해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일본제품이 아닌 가성비는 훨씬 좋으면서도 품질 또한 떨어지지 않는 국산 필기구를 소개한다.

볼펜

수업시간 중 교수님의 말씀을 빠르게 받아 적을 때, 공부하며 노트필기 할 때 꼭 필요한 볼펜!



모나미 truffis 0.7 / ₩ 300 : 두꺼운 심을 찾는 친구들에게 추천! 매우 부드러운 필기감, 삼각형 몸체로 필기하기 편하다. 저렴한 가격으로 막 쓰기 딱 좋은 펜.
모나미 fx zeta 0.5 / ₩ 600 : 제트스트림 대체품으로 유명한 제품! 제트스트림보다도 조금 더 얇은 느낌에 물어남도 없다. 빠르게 받아 적을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동아파인테크RT / ₩ 600 : 얇은 심을 찾는 친구들에게 추천! 시그노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제품이다. 얇고 균일하게 잘 나오고, 필기감이 부드럽다. 노트에 보기 좋게 필기할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형광펜

일제 형광펜의 비싼 가격에 저절로 아껴 쓰게되는 친구들 주목! 이제 아끼지 말고 저렴한 국산 형광펜 쓰자!



동아 네오라인 형광펜 / ₩ 700 : 다양한 색을 찾거나 형광펜 특유의 짙은 느낌을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한다. 다른 형광펜에 비해 대용량이고 잘 굳지 않아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마일드라이너 대체 가능! 마카느낌의 외형으로 그림감이 좋고, 펜촉 한쪽이 컷팅되어 있어 두꺼운면, 얇은 면 두가지로 사용 가능하다. 소프트라인의 레드컬러를 추천한다!

동아 HEXA slim liner / ₩ 500 : 네오라인이 큰 글씨용이라면 이 형광펜은 작은 글씨에 추천한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 형광펜으로 꼽았다. 브라이트 계열과 소프트 계열이 있으니 자신의 취향에 맞춰 선택해 사용하자!
자바 파워 형광펜 / ₩ 200 : 오리지널 버전, 소프트버전 등 다양한 느낌들의 색이 있는 형광펜이다. 이 형광펜 8개 정도가 일제 형광펜 하나이니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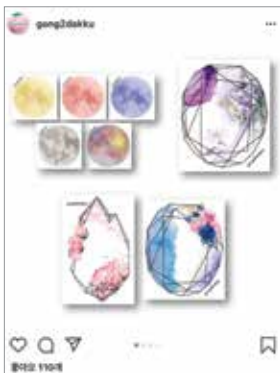
그외 문구류 소개

시중에 나와있는 평범한 필기구가 아닌 내 취향에 딱 맞고 유니크한 공책, 마스크테이프, 떡메모지, 다이어리 등을 찾고 있다면? 지금 그런 당신들을 위한 여러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소개한다!



@nungo_m(눈고)

잔잔하고 따뜻한 느낌의 감성적인 디자인! 깔끔하고 유니크한 색감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추천하는 페이지다. #감성



@gong2dakku(공이네 문구)

동양풍의 빈티지스러운 제품들이 가득! 동양 감성과 색바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추천한다. #동양풍 #빈티지 #수채화



@manta_box(만타박스)

핑크 베이스의 귀여운 일러스트 위주 디자인! 알록달록 짙은 색감의 귀여운 느낌을 좋아한다면 추천! #영롱 #컬러풀 #귀여움



@pitapat_kr(두근두근문구점)

작가들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하나하나 찾아가기 귀찮다면? 이곳에는 55명 작가들의 다양한 문구류를 판매하고 있으니 여러가지 디자인의 문구를 고르고 싶다면 이 페이지를 추천한다.

벌써 방학이 끝났다고 우울해 하지 말고 한 학기를 함께 할 필기구 쇼핑을 하며 조금씩 새학기를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나라 기자

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해줄 성향별 취미생활 추천!

입학하면서부터 자연스레 가지게 된 취업고민과 인간관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수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자신만을 위한 휴식시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주목해보자. 활동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공부를 하고 대학생활을 할 때 새로운 원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하고 마는 1회성 이벤트가 아닌,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평생의 취미를 소개한다.


몸을 직접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받는다면? 활동형!

이제 집에 누워서 쉬는 것은 지겹고, 운동은 하고 싶지만 더운 여름에 밖에서 하는 활동은 꺼려지는 사람에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장소를 추천!




클라이밍 | 오로지 손과 발만을 이용하여 벽을 오르는 클라이밍! 클라이밍은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미세근육을 사용해 몸의 라인이 예뻐지는 운동이다. 또, 동시간에 런닝머신보다 2배 이상의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 효과도 보고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또 지금 소개하는 장소는 저렴하고 학교와도 가까운 곳이니 관심있다면 한 번 방문해서 체험해보는 것이 어떨까?

- 대전청소년워센터(대전 동구 대전전동로 508) / 7,000원



볼링 | 놀이와 운동을 동시에! 생활체육으로 인기있는 볼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사랑받고 있다. 장비가 필요한 다른 운동과는 달리 볼링장에 볼링공이나 슈즈가 구비되어 있어 부담없이 가서 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볼링장에 방문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게 어떨까?

- 매드블럭 볼링장(대전 유성구 대학로 60 매드블럭 4층)
주간-2,500원, 야간-3,700원




포켓볼 | 포켓볼은 당구의 일종으로 6개의 포켓이 마련된 당구대의 구멍에 흰색 공으로 색깔 공들을 쳐서 포켓에 넣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그동안 당구장은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내기가 판을 치는 부정적인 장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17년 12월부터는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제 담배연기는 찾아볼 수 없는 쾌적한 스포츠 공간이 되었다. 음료와 간식이 무료로 제공되는 카페도 있으니 친구나 연인과 함께 찾아가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 몬스터 포켓볼(대전 중구 대종로 488번길 39) / 8,000원

시간을 투자한 만큼 뭔가 남았으면 좋겠다면? 실용형!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은 활동의 결과물을 보며 성취감을 얻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



영상 만들기 | 최근 꼭 특별한 주제가 없더라도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찍어 올리는 vlog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신의 삶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면 영상제작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요즘은 굳이 학원을 통하지 않아도 독학으로 충분히 영상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다. 유튜브 강좌들을 통해 자신만의 영상을 제작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 추천 유튜브 채널: 비도 클래스, 편집 잘하는 여자





사진 찍기 | 그 당시의 순간을 영원히 기록할 수 있는 사진은 정말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들은 카메라 못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저렴한 카메라, 또는 아날로그 감성의 필름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남기는 것은 어떨까? 또 자신이 찍은 사진을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 수익도 낼 수 있다!

- 추천사이트: 크라우드픽(<https://www.crowdpic.net/>)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면? 예술형!

강의를 신청하면 필요한 준비물들이 집앞까지 배송되는 온라인 클래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취미생활을 편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소개한 클래스 말고도 두 사이트에 다양한 취미생활이 많으니 한 번 들어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수강하길 바란다.



마크라메's '네트백 만들기' 클래스 | 최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놈코어'패션 등이 크게 유행하면서 올여름 최고 인기 아이템으로 급부상한 네트백이 온라인 클래스에 등장했다. 이 클래스는 오로지 실과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취미로,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네트백 만들기의 기본인 매듭, 테슬 만들기 등은 팔찌, 행거, 네트 등 실을 이용한 공예품을 만들 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생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예쁘기도 한 네트백 만들기 클래스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한다.

- 하비풀 홈페이지(<https://hobbyful.co.kr/>)



자몽몽's '투명한 레진 속 모든 것이 멈추는 마법' 클래스 | 레진공예란 쉽게 말해 투명한 물질 속에 간직하고자 하는 것을 넣고 굳혀 작품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주로 액세서리에 많이 이용되는데, 꽃을 담은 형태가 가장 흔하다. 레진공예의 경우, 처음 배울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그러나 내 손에서 탄생한 귀걸이, 반지 등 각종 공예품들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더 클 것이다. 또한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제품판매, 강의 등을 하며 용돈벌이도 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

- 클래스101 홈페이지(<https://class101.net/>)

자신의 취향에 맞는 취미를 찾았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 새로운 취미가 지친 하루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 정나라 기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여러분은 책에서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글귀를 보면 새로운 의지를 다지기도,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책과 글귀를 소개하려 합니다.



“괜찮아 힘내” 보다 “괜찮아 울어” 가 더 힘이 될 때가 많다는 걸 갈수록 느낀다.

너무 힘내다가 지쳐서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누가 힘내라고 하면 마음은 고맙지만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

부끄럽게도.

「시원은 밤:시밤」中
-하상욱-

* 인간관계가 어렵게 느껴질 때



「견뎌야 하는 단어들에 대하여」 -김 준-

우리가 사는 온도.
내가 10을 주어도 상대는 1이라 느낄 수 있고
같은 10이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100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온도에 살고 있다.

미완의 세계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상의 누군가도 나를 싫어하고 경멸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고 나 또한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는 법이니깐.

* 자존감이 바닥일 때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당신이 가장 존중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다. 약간의 근자감과 어느정도의 개쌔마이웨이 정신이 필요하다.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 일이 잘 안풀릴 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윤정은-

사는 거 참 꽃같다, 하고 말하면 생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오늘의 고단함도 내일은 시들어, 새로운 꽃이 필 것만 같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좀 편하게 놓아주자, 나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 하나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도 굴러간다.

* 다양한 걱정거리가 있을 때



「나아졌으면 해서」 -강선재-

- 왜.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정된 거 없잖아.
근데 왜 불행이 예정된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건데요.

우리는 살면서 행복, 불행, 슬픔, 기쁨 많은 감정들을 느낍니다. 현재 당신이 힘들거나 외롭다면 책과 글귀를 통해 당신의 감정을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합니다. 주변사람들의 뻔한 위로나 충고가 아닌 책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수연 기자

과연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을 가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말한다.

2017년 1366(여성긴급전화)을 이용한 상담건수 총 28만 9천 건 중 상담내용은 가정폭력이 62.4%(18만 건) 정도로 가장 많았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집계된 가정폭력 사건은 2015년 1만 1천 903건, 2016년 1만 3천 995건, 2017년 1만 4천 707건으로 매년 1천 건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 4만 5,453명 중 74.4%인 3만 3,818명이 여성이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기간 동안에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기혼 여성의 과반수에 이르고 폭력을 가하는 남편이나 당하는 아내 는 특정한 일부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력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녀까지 함께 폭행하여 총체 적인 가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전체의 30.4%나 된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다음 세대에도 전수되어 자녀세대의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있고 가족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고 가족공동체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며, 가족원간 범죄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가스를 폭발시켜 가족과 이웃이 죽은 경우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나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살해하는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들이 종종 언론이나 뉴스에 보도되면서 우리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느낀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심각한 사태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초기에 피해자는 소극적 대응을 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한 것과 주위에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폭력의 피해자는 신체적인 고통 외에도 자신에 대한 정체감 혼란, 상대에 대한 적개심, 분노, 억울함,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며 다시 폭력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긴장감으로 위축되고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된다.

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처음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위에 알려져 강력한 대처를 하는 것이다. 만일 주위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해준다면 폭력관계를 더 빨리 정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피해자로 하여금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같은 말은 그동안 가정폭력을 지속시켜왔던 요인이기도 하다. 폭력이 반복적 습관이 되지 않게 막아야 한다. 더 이상 가정폭력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

/김지은 기자

당신의 반려견, 모두에게 안전한가요?



반려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애완견 동반 시 지켜야 할 당연한 에티켓들. 통제 가능한 목줄 착용하기, 배변용 위생봉투 지참하기, 맹견이나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입 가리개 착용하기. 모든 반려인들이 지켜야할 펫티켓들이다.

이런 당연한 것들이 법으로 개정된 이유는 펫티켓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펫티켓들이 왜 지켜지지 않을까. 나의 반려견은 나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던 사람도 어느 순간 화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온순하던 반려견도 어느 순간 돌변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폭스테리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폭스테리어 중 반려견이 35개월 된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가 개를 안락사시키고 주인도 다시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단호한 주장을 내어 논란이 되었다. 이 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들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찍으며 다양한 반려견들을 도와줬던 강형욱은 누구보다도 강아지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들을 아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락사라는 슬픈 대안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특정 견종에 대한 오해, 선입견들이 쌓이게 된다. 하지만 건강하게 양육한 다수의 폭스테리어 보호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견종의 문제라기보다 견주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특화해 온 각 견종만의 특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므로, 겉모습만 보고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보호자로서 알아야 할 사전 지식 등을 미리 파악하고 학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한테 물리는 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가수 겸 배우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게 물린 이웃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후 개 물림 사고 방지 대책과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는 공격성이 높다고 알려진 몇몇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개 물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반려문화가 조성된 외국에서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미국에는 개 물림에 의한 모든 사고는 해당 개의 주인에게 책임이 전가된다고 명시한 ‘개 물림 법(Dog Bite Law)’이 있다. 영국의 경우는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에 따라 핏불테리어, 필라브라질레, 도사, 도고아르젠티노 등의 맹견을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해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하는 안전사고를 낸 개를 격리하고, 이 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1차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고 복수의 전문가가 모인 합의체를 구성하여 개를 다각도로 평가한 다음 최악의 경우 안락사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당신에게는 반려견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운 가족이지만, 누군가에게겐 위협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외출시에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

선정적인 광고의 계속된 등장, 관심은 걸까?



성 상품화는 성이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당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러한 성 상품화에는 매춘과 같이 직접적으로 성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영화·비디오와 같은 영상매체에서 소비자들의 성적인 자극을 유발함으로써 판매를 촉진시키는 데 성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유튜브나 SNS 등을 하다 성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의 게임광고를 접한 경험이 자주 있을 것이다. 선정적인 내용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의 시청물에서도 무분별하게 광고가 등장하는 탓에 상당히 난감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게임광고는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 심의로 규제되는 것으로 이미 소비자에게 노출이 된 후에 광고가 적절한지 평가된다. 게임내용과는 상관없는 선정적인 내용을 다룬 성 상품화 광고로 인한 게임홍행 성공으로 다른 중국게임들과 선정적 광고가 한국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 중국게임이라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어 규제가 어렵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미루기 등의 이유로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을 성 상품화하여 만든 게임내용과는 상관없는 허위광고로 인해 게임이 흥행했다는 것과 그런 나쁜 본보기를 보고 이때다 싶어 마구 쏟아지고 있는 다른 게임과 선정적인 광고들, 만든 이들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소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더 이상 광고를 보며 눈 찌푸리는 일이 없게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아동·청소년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지난 6월 28일에 공개한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의 광고에 나오는 한 어린이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어깨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으로 나왔다. 광고 중 핑크색립을 바른 입은 여러 차례 클로즈업 되어 나왔다. 이 광고를 본 또래의 아이들은 ‘중학생 이상의 나이인 줄 알았다’, ‘주위에 이런 친구는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광고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어린이를 성 상품화했다’라고 지적했고 논란이 일자 배스킨라빈스는 하루 만에 영상을 삭제했다.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아동 속옷모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불필요한 포즈를 강요하는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아동을 성인처럼 꾸며서 연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제나 법안은 마련되어있지 않다.

국내에서 아동모델의 성 상품화 논란이 잇따르면서 협약을 근거로 한 최소한의 규제와 아동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동모델이 원하는데도 진한 화장과 포즈 등을 막는 것은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잘못된 광고를 봤을 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대중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광고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으로 어떻게 제작하고 전달될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이미지를 심어주고 좋은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광고의 역할이 아닐까.

광고는 대중에게 자주 노출되기에 부적절한 광고로 인해 사람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광고에 대한 규제나 제도가 구체적인 방향으로 잘 나와 여성이나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며, 광고를 접하게 되는 대중들은 광고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 경각심을 갖고 봐야할 것이다.

/ 오다영 기자

사랑으로 포장된 범죄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한 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한다. 폭력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데이트폭력이 예민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데이트폭력도 결국에는 ‘사랑’을 전제로 하다 보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생활’로 치부되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곤 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폭력이 행해지는 순간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뿐이라는 걸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심지어 사법기관에서도 말이다.

지난해 일어났던 부산 데이트폭력은 많은 이들에게 그 심각성을 일깨워주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CCTV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가해자 B씨와 A씨는 만난지 3개월에 접어든 커플이었으나 평소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B씨에게 A씨가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B씨는 A씨의 옷을 벗겨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오갔으며 자신의 집에 가두고 폭행을 이어갔다. 기절했던 A씨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했고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의자 B씨는 체포직후에도 A씨에게 “나 도와줄거지, 다른 남자 만나지마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데이트폭력 관련 특별법이나 규정이 없어 폭행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이었다.

올해 1월에는 서울 신림동에서 데이트폭력 살인사건이 있었다. 서울시 신림동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피해여성은 43차례 칼에 찔린 채로 잔혹하게 살해되어 있었다. 사건의 가해자는 다른 아닌 여성의 남자친구였다. 가해자 박씨는 여성이 3~4시간가량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남자와 있다고 생각해 여성의 집에 불법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고, 청원글은 13일만에 7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2013년 7,237건이던 데이트폭력은 2014년 6,675건으로 줄었지만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 30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만큼 제도적 처벌 강화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검찰은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데이트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검찰 구형기준도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경찰은 ‘데이트폭력 근절 특별팀’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대응강화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데이트 폭력 처벌이 법제화가 되지 않는 한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피해사례 발생 후 뒤늦게 처벌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별통보가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안전이별’이라는 단어까지 생길 정도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은 너무 쉽게 합리화되고 용서가 된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연인사이의 모든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분명한 범죄이다.

/ 박수연 기자

간접흡연, 그만하고 싶어요

간접흡연이란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시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담배연기를 마시게 된다는 뜻이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거베이스 박사팀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1년간 1,661명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을 경우 호흡기질환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직접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오히려 간접흡연의 경우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간접흡연자에게는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보다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독성 화학물질의 농도가 2~3배 정도 높은 생담배 연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간접흡연이 오히려 직접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간접흡연은 주로 아빠보다는 엄마, 담배를 피지 않는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된다.

그렇다면 캠퍼스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할까?

캠퍼스 내에 흡연구역이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지 아는가?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흡연 하는 학우들의 모습을 학기 중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흡연은 개인의 자유이며, 담배는 기호식품 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강의동 이동 시 비흡연구역 어딘가에서 피는 담배냄새를 맡으며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는 불쾌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정해진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면 누구도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을 존중하는 보건대학교 학우들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학교 내 흡연구역은 어디일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흡연은 자신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병들게 한다. 이 기사를 통해 간접흡연의 위험성, 흡연구역에 대해 숙지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공생하는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신학수 외 6인, <상위 5%로 가는 생물교실 1> - ‘간접흡연이 더 나쁜 이유’ 중 /오다영 기자

도서관 옆 오픈형 흡연부스



1동 측면 흡연장소



9동 본부동 뒤편 호연숙으로 올라가는 곳에 오픈형 흡연부스 2개, 흡연구역 안내문





황제병, 바람만 스쳐도 아파요!


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표현될 만큼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질병으로 ‘황제병’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왕이나 귀족처럼 고기와 술을 즐기는 뚱뚱한 사람에게 잘 생기기 때문입니다. 식습관과 운동부족 등이 일으키는 통풍은 대표적인 대사질환의 하나로 요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관절, 연골 주변에 쌓여 관절을 자극하고 이로 인한 염증과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통풍은 대개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절 부위에 빨갛게 열이 나고 염증발생과 통증이 극심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하고 5~10일간 지속되며 오한과 발열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부위는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이며 경우에 따라 발꿈치, 손, 어깨까지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풍증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합병증으로 요로결석, 심근경색 등이 나타나며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초기에 예방하는 습관이 중요하데요, 지금부터 통풍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번째, 통풍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 

김 - 김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 포피린은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효과가 뛰어나 요산이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몸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달걀 - 달걀은 혈관 속 노폐물 흡수를 막아주는 레시틴 성분과 몸안의 좋지 않은 요산 및 독소를 걸러 요산 배출을 원활하게 돕고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차단해줍니다.
- 

검은콩 - 검은콩은 피를 맑게 해주고 뭉쳐있는 피를 풀어주는 해독작용을 합니다. 또한 물을 넉넉히 붓고 달여 마시면 소변배출을 돕고 통풍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 

수박 - 이뇨작용이 뛰어난 과일로 알려져 있고, 수박의 성분은 혈중 요산농도를 낮춰주고 소염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간단한 운동들을 추천하자면 땀을 적당히 흘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수영, 산책하기 등이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은 요산생산을 증가시키고, 몸속에 젖산이 축적돼 요산배설 감소로 통풍발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풍’을 많이 들어는 봤지만 주위 사람 중에 앓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마냥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통풍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에 비해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국내 환자는 49% 증가했고, 20~30대의 젊은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통풍, 이번 기사를 통해 통풍의 위험성에 대해 깨닫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해 모두 통풍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자들의 외로운 싸움

한평생을 바쳤으나, 병을 얻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 직업병, 사망 등의 신체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통틀어 말한다.

산업재해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은 관계없이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업무상의 사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자면 대한항공에서 일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린 전직 승무원 K씨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 2009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K씨는 승무원으로 6년간 북극항로를 다니며 우주방사능에 피폭된 것과 야간·교대 근무 등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K씨는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연차와 병가를 90여 일 쓰고 1년 휴직을 했다. 하지만 휴직기간에 날씨가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씩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K씨는 “사직이라는 단어만 안 꺼냈지 사직하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라고 전했다. 승무원에 대한 미련이 남아 끝까지 퇴사하고 싶지 않았지만 폐렴으로 건강이 더 나빠져 결국 2017년 2월 퇴사를 했다. K씨는 백혈병 발병이 승무원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6월 산재 신청을 하였다. 이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선행 연구 등을 볼 때 승무원의 방사선 노출과 혈액암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서울성모병원에서도 방사선 노출과 암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한항공 측은 “우주방사능과 암이나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방사선 탓에 암에 걸렸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극은 지구에서 우주방사능이 가장 강한 지역이다. 대한항공은 특히 다른 항공사보다 노선수가 많고 북극항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주방사선 피폭량이 많다.

대한항공이 북극항로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비행시간과 거리가 감소되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들의 피폭량 자체가 많지 않고 법정 기준치보다 낮게끔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북극항로 사용을 강행하는 중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A씨는 1997년 고등학교 졸업 후 삼성전자 온양공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2003년 퇴직을 하였고 그 후 2010년 뇌종양이 발병하여 2012년 사망하였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이 발병된 것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그 정도로 뇌종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다시 2심의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2심에서는 질병 발생 위험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며 업무 관련성이 쉽게 부정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뇌종양 관련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삼성전자 LED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김씨가 백혈병에 걸려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다사다난했던 공방 끝에 LED 백혈병 노동자 중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되었다.

2019년 1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가 추가되었다. 최근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인정범위와 승인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고민을 떠안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산재보험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또한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산업재해는 어떻게 소명을 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산재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불이익을 받으면 권리를 주장하고 표현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박수연 기자

青春 왜 아파야 성장할까요?

청춘 [青春]
: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취업을 앞둔
어느 대학생 A씨의
사례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자신감이 툭 떨어져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창 새파란 청춘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 그냥 놀아. 즐기면서 해” 누구는 청춘을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고 말하고 어느 누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말한다.

어느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정말 놀 시간이 없었어. 등록금 내려고 근로 봉사도 했지, 주말에 알바도 했지, 장학금타려고 학점관리 했지. 난 진짜 이번 학교생활 하면서 마음놓고 쉬었던 적이 없었던 거 같아.” 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아직 많은 것을 꿈꾸고 다양한 경험을 해도 모자를 청춘이라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현대사회는 많은 것을 제약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취업난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린다. 전공학문 공부는 물론 과제제출과 현장실습, 봉사활동, 토익점수, 교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취업준비에 매진한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취업성공을 한 후에도 청춘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일터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퇴사를 한다.

취업난이 여전한 가운데 청년퇴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312개 기업 대상 조사를 통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010년 15.7%에서 2016년 27.7%로 증가했다. 2018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5.9개월에 불과한 형편이다.

퇴사이유는 청년들이 마주한 노동세계는 어릴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무례하고 폭력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위계적이고 제한적이며 상사나 경영진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응해야 하는 일터가 많기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그렇지만 퇴사 후 경제적 조건, 가족, 불안정한 상황 등에 의해 다시 열악한 일자리로 들어가는 삶을 반복하는 청춘들이다. ‘스펙쌓기 → 취업 → 실망 → 퇴사 → 스펙쌓기 → 취업’이라는 취업 순환고리는 청춘들의 암울한 현실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다. 왜 청춘은 아파야하며 즐기라는 청춘이라는 시기에 마음 놓고 즐기지 못하는 것일까. 쉬어야 하는 휴일에도 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청춘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청춘들에게 아픔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의 주체적인 태도에 박수를 보낸다.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일터에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삶을 꿈꾸기를 멈추지 않으려 하는 젊은 층의 태도는 주목해봐야 한다.’

참고 문헌: [연구보고서] ‘퇴사, 일터를 떠나는 청년들’ - 천주희 외 2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김지은 기자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정책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되는 정책을신청해 혜택을 누리자.



주거

| 청년맞춤 전월세 대출



- 목적.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보증금 최대 7천만원, 금리 2.8% 내외), 월세자금 대출(월 50만원, 금리 2.6% 내외), 기존대출(전세자금 7천만원, 월세자금 1천 2백만원까지)

| 행복주택

- 목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대상. 인근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예정 미혼인 무주택자, 취업준비생은 대학 졸업·중퇴 2년 이내 미혼인 무주택자
- 조건. 임대조건은 주택형 및 공급대상별로 상이한 가운데,

기본 보증금은 주택크기에 따라 최소 1,500만원대부터 최대 4,2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고, 월 임대료는 7만~19만원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목적. 사회 초년생,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 제공
- 대상. 만 19세~29세 (군 복무자 31세)
- 조건.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



구직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만 34세 이하[청년취업성공 패키지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중위소득 120% 이하(2019년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2,048,409원 이하)]
- 지원.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하는 사람 대상으로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각 지자체 별로 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음
- 조건. 미취업자

| 청년취업인턴제

- 목적.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임금의 전액,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공기업·민간 기업에서의 인턴채용 기회를 제공
- 지원. 인턴 기간 동안 매월 50~60만원 인건비 지급, 인턴에게는 최저임금의 110% 이상 약정 임금 보장,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는 정규직 전환금, 인턴에게는 취업지원금 지원



목돈 마련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목적.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 지원, 사회 초년생 목돈 마련하기
- 대상. 만 15세~34세 이하
- 조건. 정규직 취업 3개월 이내 신청,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가입기간 지났다면 실직기간 6개월 이상)

| 근로장려금

- 목적.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고, 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
- 신청요건. **가구원 요건** -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중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 하는 70세이상 부모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해당한다. **재산 요건** -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홀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상반기 (1~6월) 소득분: 12월 지급 / 하반기 (7~12월) 소득분: 다음해 6월 지급



교통

| 광역 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 후불교통카드 도입, 전국 호환 가능
- 매월 교통대금의 10%를 할인, 앱을 통해 이용할 시 마일리지로 20%를 추가 할인



위에 소개해 드린 정책 중 여러분이 시도해볼 만한, 혹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청년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많지만, 계속해서 제도가 개선되고 변경되고 있으니 꾸준히 학습하고 꼼꼼히 들여다보자.

/ 김기중 기자

The Wisdom of Solomon 19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복잡한 삶의 문제를 종종 우리의 능력 밖의 것들일 때가 있다.

열아홉 번째 여행을 떠나 보자. 솔로몬은 지혜와 어리석음 (Wisdom and Folly)에 대해 얘기한다.

The path of life leads upward for the wise / to keep him from going down to the grave.
생명의 길은 지혜로운 자를 위해 위쪽으로 나 있다 / 그가 아래로 난 무덤의 길을 벗어나 나게하기 위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바른 생각을 하는 이의 인생은 하늘로 가는 오르막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내리막길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잠언 15:24)

[어휘] path : 길
keep A from ~ing : A가 ~하지 못하게 하다
grave : 무덤

위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본적인 태도를 알려주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위와 아래가 대조되고, 생명과 무덤(스올)이 대조되고 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아래의 삶은 소망 없는 삶을 의미한다.
이처럼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결정한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로 결정된다. 바른 생각은 바른 태도를 가져온다. 그리고 바른 태도는 바른 인격으로 연결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
이제 2주 후면 개강을 하게 되고 2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결심해 보자. 아마도 원하는 수준의 지혜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혀 노력하지 않을 때 보다는 분명 노력하면서 실패하는 동안에 더욱 성장할 것이다.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 자신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없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잡하고 힘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교양교육원 안남용 교수

도서관소식

신간안내 ※ 이외의 다양한 신착도서들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잊기 좋은 이름
김예만



다정한 구원
임경선



유럽 도시 기행
유시민



설민석의 삼국지
설민석



자신감
사를 평평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
정우성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
박연준



천년의 질문
조정래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박막례, 김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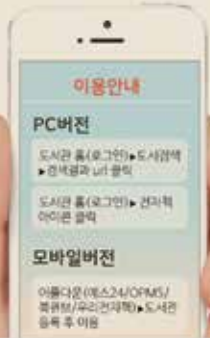


리얼 간호사 월드
최원진

전자책 이용 안내

무겁고 두꺼운 도서
E-BOOK 으로
간편하게 보세요!

현재 도서관은
국내 40,354권 / 국외 30,000권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자참여퀴즈

1. 우리학교 신문사에서 참가한 '지역사회와 대학생의 소통' 관련 토론회의 이름은? 1면 참고
2. 우리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한식동아리의 이름은? 3면 참고
3.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은 무엇일까? 6면 참고
4. 연인 사이에서 한 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뜻하는 말은? 6면 참고
5. 성이 시장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당하는 현상은? 7면 참고
6. 대표적인 대사질환의 하나로 요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관절, 연골 주변에 쌓여 관절을 자극하고 이로 인한 염증과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은 무엇일까? 8면 참고
7. 업무상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 직업병, 사망 등의 신체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통틀어 말한 것은? 9면 참고
8. 사회 초년생,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청년정책은? 10면 참고
9.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10면 참고
10. 이번 신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순우리말퀴즈

‘도담도담’의 뜻은 무엇일까요?

- ① 여럿이 나직한 목소리로 정답게 이야기 하는 소리
- ② 아이가 별 탈없이 자라는 모습
- ③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

/ 박수연 기자

<지난호 퀴즈 정답>

1. 나래제
2. 응급구조과
3. 넷플릭스
4. 가면우울증
5. 군중심리효과

<순우리말 퀴즈 정답>

①

<지난호 정답자>

환경보건과 2학년 권재혁
사회복지과 3학년 정영현
의무행정정보과 2학년 윤소혜
환경보건과 2학년 강보성

작업치료과 2학년 이지현
환경보건과 2학년 장연철
작업치료과 3학년 허수지
방사선과 3학년 구희진

간호학과 3학년 조준현
작업치료과 3학년 이은영
물리치료과 3학년 정연우

과 학년 이름
연락처

퀴즈는 신문사 앞 '독자참여함'과 '대전보건대학교 HIT 신문방송국' 페이스북 메시지로 참여 가능하니 정답과 함께 학과,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주세요. 정답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상품권 지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신문은 원고를 기다립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신문에서는 238호에 실릴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진, 시, 수필,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말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2019년 9월 27일(금) 18시
보내주실 곳: tnwl9424@hit.ac.kr 또는 신문사(8416호) 우편함

제 **25** 회

청운문학상 공모전

접수기간

2019. 10. 07(월) ~ 10. 28(월)



공모대상

대전보건대학교 재학생

공모부분

- 소설 (원고지 60매 내외)
- 수필 (원고지 15매 내외)
- 시 (2편 내외)

공모혜택

부문	소설	수필	시
상금	장원 500,000원 가작 300,000원	장원 300,000원 가작 200,000원	장원 200,000원 가작 100,000원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각 부분 수상작은 대전보건대학교신문 239호에 게재

작품 제출 방법

- 1) 원고 출력본(A4) 1부 + 원고 한글파일(hwp) 1부
- 2) 원고 출력본은 8416호 신문사 사무실로 직접 제출
- 3) 한글파일은 hit-press@naver.com으로 전송

- * 제출 시 표지에 성명, 학과, 학번, 학년, 연락처 필히 기재
-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작품의 저작권은 대전보건대학교에 있음
- * 수상작 발표 후라도 표절작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을 전면 취소함

공모일정

- 접수기간 : 2019년 10월 07일(월)~10월 28일(월)
- 결과발표 : 2019년 11월 08일(금) 개별연락
- 시 상 : 추후 공지

문의

대전보건대학교 신문방송국 ☎ 042) 670-9590 / 9029

'청운문학상'의 진행비용은 전액 신문방송비(학생수납금)로 이루어집니다.



대전보건대학교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